

유럽연합(EU)의 국제분쟁 대응과 독자적 안보 전략의 부침: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응의 안보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 병 기 | 서울대학교

냉전 종식과 EU의 중·동유럽 확장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EU는 독자적 안보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주적 안보정체성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더욱 강화되는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EU의 대응은 독자적 안보전략 모색의 좌절로 이어졌다. 전쟁 중 EU 차원의 참여는 EU 회원국들의 개별적 참여로만 가능했으며, 종전 후 일정기간 동안 EU의 아프가니스탄 대책도 민간외교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보호와 대민행정에 한정되는 등 EU는 미국과 NATO의 범주 안에서 움직여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력 군사 파견과 같은 독자적 전략도 꾸준히 추진하면서 유럽주의와 다자주의의 시도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분쟁과 관련한 EU의 안보 정책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극적이지만 효과적인 다자주의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공동외교안보정책, 유럽안보방위정책, 아프가니스탄 전쟁, 유럽주의, 다자주의

I. 서론

국제 분쟁의 역사는 인류 정치의 보편적 역사만큼이나 길다. 분쟁은 안보 공동체를 탄생시켰고 안보공동체는 새로운 국가의 역사를 형성했다. 경제통합으로 시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2-BM0010).

작된 유럽통합의 역사가 정치통합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실마리도 안보공동체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각종 조약의 체결과 국제 분쟁 대응과 관련해 유럽의 공동안보정책도 급속히 발전하여 연구자들 간의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유럽안보정책의 발전을 분석하는 입장은 현실주의(realism)와 인도주의(humanism) 및 실용주의(pragmatism)라는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Whitman 2006, 11-13).¹⁾ 현실주의는 유럽안보정책을 당대 국제관계의 현실에 조응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미국에 비해 약한 군사력을 보유한 유럽연합(EU)의 처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안보정책의 강화를 강조하는 논리로 작용하는²⁾ 반면, 인도주의는 개인을 안보정책의 중요 대상으로 보고 대량 인권침해에 의해 야기되는 불안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라는 의미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논리로 기능한다.³⁾ 한편 실용주의⁴⁾는 EU의 안보전략을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보아 EU의 세력 강화를 위한 실제 행동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특히 이 입장에 따르면, 유럽안보정책의 예방적 개입(preventive engagement)과 효과적 다자주의(effective multilateralism)가 중요하게 강조된다.

현실주의와 인도주의는 각각 유럽안보정책의 특정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논리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입장은 다른 한편으로 정책에 대한 일면적인 파악에 머물고 구조적이고도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천착을 경시한다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구조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현실주의적 입장이지만 구조의 특성을 중시하는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와 실용주의를 종합하여 유럽안보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유럽안보정책의 구체적 특징들을 '지구적 행위자(global

1) 그밖에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및 그 종합적 입장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이 글은 유럽연합(EU)의 국제관계보다는 유럽안보정책에 집중하고자 하므로 국제관계에 대한 종합적 시각보다는 구체적인 안보정책에 대한 관점을 택하고자 한다.

2) 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EUISS)와 Venusberg Group(1999년 Bertelsmann 재단에 의해 설립된 유럽안보방위정책 연구자 단체)에 의해 대표됨.

3) "A Human Security Doctrine for Europe: Barcelona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Europe's Security Capabilities" (Barcelona, 15 September 2004)에서 제기됨.

4) EU의 Foreign Policy Center(FPC)가 주장하고, 특히 Whitman(2006)에 의해 이론화됨.

actor)로서는 국제적 세력(power)이지만 미국에 대항하는 '지구적 균형세력(global power of balance)'은 되지 못한다는 관점(Whitman 2006, 8)을 견지하는 한편, 구조와 가능성을 함께 강조하는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양극체제(bipolarity)의 붕괴 후 EU가 미국에 대해 일정한(적어도 지역적 의미에서는) 균형세력으로 작동하기를 시도했고 또 가능성이 있다(Posen 2006, 149~186)고 본다.

이 글의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전쟁을 둘러싼 유럽안보정책의 변화와 전망이다. 이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9·11테러 직후 미·영 합동군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의해 시작된 전쟁을 말한다. 국제적 성격을 띤 아프가니스탄 분쟁은 1978년 내전으로 시작해 소련의 침공을 거치는 오랜 과정을 거쳤지만, EU의 안보정책 성립이나 실제 개입 문제에서 9·11테러 이전의 분쟁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9·11테러 이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EU가 처음으로 국제 테러를 중요한 안보개념으로 인식하는 변화를 겪게 하고 중동지역을 넘어 서남아시아까지 안보정책의 실질적인 개입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럽안보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축적되었으며, 특히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참조할 만한 문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럽안보정책 자체나 발간 반도의 분쟁들 혹은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유럽안보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 9·11테러와 관련된 이라크 전의 전초전으로 간주하고 접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EU의 대응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대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이점을 역으로 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대응 방식이 이라크 전에 대한 대응에서도 대부분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EU안보정책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글의 구성은 EU안보정책의 변화가 시작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냉전 종식 후 유럽의 안보환경과 안보개념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개와 그에 대한 EU와 유럽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 독자적 안보전략 모색을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정책 변화의 맥락에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종전 후 EU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대책에 대해 분석한 후 이를 유럽의 안보정책적 의미에서 평가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미국 일방주의

의 국제질서에서 EU의 특징인 다자주의 안보정책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본다.

II. 냉전 종식 후 유럽의 안보환경과 안보개념 변화

냉전의 종식은 세계 각국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물론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는 전통적 안보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다른 제반 조건이 상이해짐에 따라 근본적으로 색다른 안보위협에 처한 지역도 생겨났다. 냉전종식 후 유럽의 안보환경도 이러한 현상에 따라 서로 다른 세 지역으로 구분되었다(Hyde-Price 2002). 곧, 서유럽에 해당하는 안정된 평화지역인 핵심지역(core zone)과, 대부분 현실사회주의권에 속했지만 서유럽 자본주의권으로의 복귀를 갈망해온 중유럽 중심의 중간지역(intermediate zone), 그리고 앞의 두 지역과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상이하고 인종문제와 국가건설이 정치적 의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동유럽과 발칸 지역의 외부지역(outer zone)이었다. 그러나 9·11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EU와 그 회원국들이 중동과 서남아시아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이슬람권과 관련된 국제적 테러도 안보문제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에는 비(非)유럽지역도 유럽 안보환경의 제4지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냉전 종식 이전까지 유럽을 포함한 국제 질서에서 안보개념은 주로 동구블럭의 침공이나 서유럽 내의 잠재적 무력 행사에 따른 군사적 위협이라는 전통적 의미였던 반면, 냉전 종식 이후 9·11테러 이전까지는 중간지역과 외부지역에서 연유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곤경에서 파생되는 인종분규와 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난민과 이민, 인권유린, 환경오염 등의 비전통적 개념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이수형 2004, 171). 그러나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개념은 제4지역인 비유럽지역으로부터 오는 테러위협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추가했는데, 이는 변형된 전통적 개념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오늘날 유럽의 안보환경과 안보개념은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에 다 같이 실질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국가적 접근방법에 따른 전통적 안보개념과 달리 비전통적 안보개념은 탈국가 중심적 접근방법에 따라 개별 인간들의 복지와 사회 및 세계의 측면에서 안보를 사고하는 것과 관련되었다(이수형 2003, 120). 즉, 미시적으로는 개인적 혹은 인

간안보를 포함하고 거시적으로 국제적 혹은 지구적 안보수준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공동안보(common security)나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또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등으로 불렸다. 그에 따라 냉전 종식 후 9·11테러 이전까지 유럽안보질서에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및 유럽안보협력기구(OSCE)⁵⁾ 등의 안보기구들 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다자주의적 안보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 유럽의 독자적 안보를 강화하려는 유럽주의(europeanism)와 미국과 NATO 중심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대서양주의(atlanticism)의 갈등 속에서 후자를 주축으로 하지만 유럽주의의 강화도 기도하는 느슨한 형태의 다자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9·11테러 직후 미국이 벌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유럽이 개입한 이후에는 미국과 NATO의 주도권이 강화되고 유럽의 안보는 기존 협력안보의 틀 안에 더욱 종속되게 되었다.

한편, 2004년 이후 EU의 중·동유럽 확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유럽 안보환경과 안보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2004년 이전까지는 EU회원국이 서유럽에 한정됨으로써 유럽안보가 핵심지역에 국한되었다면, 2004년 이후에는 외부지역의 유럽국가들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유럽 안보환경 지역은 EU지역과 EU 외부 유럽지역 및 비유럽지역으로 다시 규정될 수 있다.⁶⁾

5)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유럽의 지역적 현상유지를 도모할 목적으로 35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975년 8월 헬싱키 정상회의의 개최시 최종의정서(Final Act)가 채택됨으로써 창설된 CSCE(Conference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후속조직으로서 1995년에 범유럽안보협력기구로 상설화되었다. 2008년 현재 전 유럽 국가들과 미국 및 캐나다 등 5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한국, 일본, 이집트 등 11개국이 협력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http://en.wikipedia.org/wiki/Organization_for_Security_and_Cooperation_in_Europe (검색일: 2008. 8. 21); OSCE 홈페이지, <http://www.osce.org/about> (검색일: 2008. 8. 21).

6) 서유럽 핵심지역의 안보개념에 대해 베스트팔렌 체제의 형성과 관련해 설명하는 글과 신중세 모델적으로 설명하는 글은 각각 Wallace(1999)와 Bull(1977)이 있다. 그러나 이 설명과 EU의 중·동유럽 확대 이후의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유럽안보정책이라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더 이상 상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III. 유럽연합의 안보정책 변화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응

EU 설립 후 안보정책의 발전은 국제분쟁과 관련해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 체결 이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Herzegovina) 분쟁을 계기로 이루어진 1997년 암스테르담(Amsterdam) 조약 이전의 제1기,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코소보(Kosovo) 분쟁을 통해 이루어진 1998년의 말로(St. Malo) 정상회담까지의 제2기, 말로 정상회담 이후 니스(Nice) 조약을 거쳐 9·11테러 이전까지 이르는 제3기, 그리고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시기인 제4기가 그것이다.⁷⁾ 이 중 제1기에서 제3기까지는 이 논문의 주요 분석대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의 안보정책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함께 묶어서 다루고 제4기는 핵심 분석대상인 만큼 별도의 절로 엮어 보다 상세하게 고찰한다.

1. 유럽연합의 안보정책 발전과 독자적 안보전략의 모색

EU를 출범시켜 제1기를 연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외교안보정책 결정은 대서양주의자와 유럽주의자들 간의 일차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대서양주의자와 유럽주의자 간의 논쟁에서 두 가지 사항, 즉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정책결정 규칙과 유럽연합(EU)과 서유럽동맹(W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에 따라 유럽이사회가 각료이사회 의 지침서를 작성하고, 각료이사회가 그에 기반하여 공동행동의 주제를 만장일치

7) 이승근·황영주(2004, 102)는 1970년 공동외교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룩셈부르크 보고서의 채택 이후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전까지의 시기를 유럽정치협력체(EPC: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공동안보개념 정립단계로서 제1기로 구분하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1999년 쾰른 유럽이사회 이전까지의 시기를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중심으로 하는 중기 공동안보개념의 정립단계로서 제2기로 구분하며, 1999년 쾰른 유럽이사회 개최 이후 시기를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을 중심으로 EU 내 실질적인 정치·군사기구 창설을 결정한 후기 공동안보개념 정립단계인 제3기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 구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EU의 안보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 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로 결정하며,⁸⁾ 그 부속 결정들을 가중다수결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었다.⁹⁾ 그리고 EU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WEU는 EU 발전의 핵심 부분으로서 방위적 합축성을 가지는 EU의 결정과 행동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각료이사회는 WEU와 일치하여 필요한 실제적 준비를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¹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U의 정책은 북대서양조약에 따른 회원국가들의 의무를 존중하며 그러한 틀 내에서 수립된 공동안보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¹¹⁾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럽정치협력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으로 전환한 것은 유럽안보정책의 발전에서 중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U의 3개 개별적 기둥구조에 따른 정책적 일관성이 부재하고, 만장일치체에 따라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정책결정이 어렵다는 문제 외에도, 각 회원국들의 안보적 특수성,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NATO 안보정책의 조화 의무, WEU와 EU 및 NATO 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안보정책과 수단이 부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제2기와 제3기에서는 국제분쟁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 인식이 유럽안보정체성의 발전을 가져와 제도적·실천적 발전과 연결되었다. 곧, 유럽에서의 냉전종식 직후 유럽인들과 유럽국가들 사이에 유럽안보를 자신들의 손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보자주성이란 의미의 안보정체성이 발전되었고, 그에 따라 EU의 안보정책이 집행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럽의 안보환경과 안보개념이 중간지역과 외부지역의 내외부 갈등을 계기로 변화되었듯이 유럽안보정체성도 이 지역의 갈등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국제분쟁은 외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므로 외부지역의 갈등이 중요했다. 그중 일차적으로 중요한 분쟁이 1994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분쟁과 1998/99년 코소보 분쟁이었다. 군사적 분쟁으로 발전된 이 지역의 갈등이 기존의 비군사적 안보정체성을 변화시킨 것이다.

1994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분쟁은 외부 분쟁 개입의 한계로 인해 곧바로 EU의 논의로 이어졌다. 그에 따라 1997년 조인된 암스테르담 조약은 마스트리히

8) Treaty on European Union, Title V. Article J.3.1.

9) Treaty on European Union, Title V. Article J.3.2.

10) Treaty on European Union, Title V. Article J.4.2.

11) Treaty on European Union, Title V. Article J.4.4.

트 조약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대폭 보완하여 집행력을 강화하였다. 우선, 각료이사회의 가중다수결제도에 건설적 기권 제도를 도입하여 의결가능성을 높였고, 유럽이사회가 정의한 공동전략을 적용하는 결정과, 이미 이사회가 채택한 공동행동이나 공동선언을 실행하는 결정의 경우에 가중다수결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다.¹²⁾ 그리고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실질적 대표자로 CFSP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for the CFSP: 각료이사회의 사무총장이 겸임)를 신설하여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분석, 정책입안을 위한 분석과 전략 강구, 위기시 조기경보 시스템 발령 등의 임무를 맡도록 하였다.¹³⁾ 또한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EU 회원국들은 이른바 피터스버그 과제(Petersburg tasks)¹⁴⁾에 협력하기로 동의하여 기존의 과제들, 즉 인도주의, 구제, 평화 유지(peacekeeping), 위기 관리시 전투대 투입, 중재와 평화 수립(peacemaking)에 EU의 대외적 역할을 추가하고 군사력의 사용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였다(Duke and Ojanen 2006, 479).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발생한 코소보 사태는 미국과 서유럽 간의 관계에서 유럽안보정책성 변화의 더욱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코소보 사태의 여파로 초래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헤게모니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데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염려가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따라 무엇보다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로 강력하게 대립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1998년 12월 말로(St. Malo) 정상회담을 통해 WEU를 EU에 통합하는 데 합의하고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EU가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자율적 군사행동능력을 보유할 것을 천명하였다(이수형 2004, 188-189). 특히 코소보 사태에 직면하여 열린 1999년 6월 쾰른(Koln) 유럽이사회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보 분야를 더 구체화하여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을 수립함으로써 이후 EU가 집단안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11월 룩셈부르크(Luxemburg)에

12) Treaty of Amsterdam, Article 23(2).

13) Treaty of Amsterdam, Article 18.

14) 1992년 6월 19일에 서유럽동맹(WEU)과 관련된 EU의 주요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채택된 WEU 과제를 지칭하는 말로, 당시 이 선언이 이루어진 성(城)의 이름을 딴 것임. 피터스버그 선언은 WEU의 임무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구조사업, 평화유지, 중재·평화수립에 위기관리시 전투력 업무를 추가하였다(김미자 2004, 191).

서 개최된 WEU 국방·외무장관 회담은 코소보에 대한 일방적인 NATO 공습과 WEU 회원국들의 군사력 행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오일환 2001, 376). 더 나아가 1999년 12월 핀란드 헬싱키(Helsinki)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담에서는 코소보 사태와 같은 지역분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럽 독자방위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럽의 안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NATO와는 별도로 2003년까지 역내 평화유지 작전수행을 위한 5~6만 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과 단일 지휘통제체제를 갖춘 EU의 정치·군사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정하였다(이수형 2003, 130). 그에 따라 2001년 조인된 니스(Nice) 조약에서는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수행을 위한 정치안보위원회(PSC: Political and Security Committee), EU 군사위원회(EUMC: EU Military Committee), EU 군사참모부(EUMS: EU Military Staff)의 창설이 결정되었다.¹⁵⁾

이와 같이 제1기에서 제3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발생한 대표적인 국제분쟁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분쟁과 코소보 분쟁이었다. 그리고 이 분쟁들에 대한 대응을 통해 유럽연합은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의 한층 발전된 합의를 이끌어내 독자적 안보전략을 모색하면서 군사적 안보정체성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 유럽연합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응과 독자적 안보전략의 좌절

제4기를 연 대표적인 국제분쟁은 2001년 9·11테러 직후에 발발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다. 제3기까지의 분쟁들이 유럽안보정체성 정립의 계기였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사뭇 다른 의미에서 유럽안보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테러위협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 EU의 인식이 싹텃음에도 불구하고 NATO와 미국의 주도권 안에서 군사적 안보정체성의 한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EU는 독자적 안보정체성의 확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국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금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결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 간의 합의가 지속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5) Treaty of Nice, Article 25.

2001년 10월 7일 미국과 영국의 합동 군사작전으로 발발한 본격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같은 해 12월 14일 미국 부시 대통령의 승전 선언으로 종결될 때까지 약 두 달이 조금 넘게 지속된 그다지 길지 않은 전쟁이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은 9·11테러 직후부터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다.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공세가 재빨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도 준비된 듯이 신속했다.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선언한 후 얼음이 채 안 된 2001년 9월 20일 경에 EU 회원국들은 이 전쟁에 대한 지원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EU 회원국들은 곧 공항경비 강화와 아울러 국경 통제와 수출 통제를 다짐하면서 테러조직들에 대한 금융지원 중지를 약속했고,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자국 군사기지들을 미국이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며(〈표 1〉 참조), 같은 해 10월 3일에는 프랑스가 영공개방 및 군사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10월 7일에 처음부터 미국과 공조했던 영국이 미·영 합동군에 참여해 아프가니스탄에 공습을 개시한 후, 11월 4~9일 사이에는 네덜란드가 1,200명의 군사를 파병했고, 독일이 아프간 전쟁 파병의사를 표명했다. 프랑스는 11월 17~18일에 다시 미라주(Mirage) 폭격기 10대의 파견을 결정했으며, 독일도 11월 26일에 실제 군사지원을 시작했다. 다시 말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대응은 9·11 직후의 대테러 전쟁의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반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간에 EU가 취한 조치는 개전 이전에 이루어진 대표단의 선언적 발표와 중전 직전에 결정한 재건 지원이 전부였다. 2001년 9월 20일 경에 EU 대표단은 미국과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국제테러리즘을 제거하기 위해, 그 지도자와 하수인들과 조직망을 제거하기 위해, 포괄적이고도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펼 것”이라고 발표했다(유정석 2002, 57). 그리고 2001년 2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도입된 신속반응기제(RRM: Rapid Reaction Mechanism)가 위기 관리를 위한 재정적·인도적 지원 제도로서¹⁶⁾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실시되어, 그 일차 조치로 정치적·경제적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약 453만 유로를 투입

16)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troduction.” 유럽연합 홈페이지, <http://europa.eu/scadplus/leg/en/lvb/r00001.htm>(검색일: 2007. 6. 3).

〈표 1〉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대응

일시	미국/NATO	EU 회원국	EU
2001. 9.11	뉴욕 세계무역센터 및 국방부 건물에 피랍 항공기 충돌		
2001. 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 포르투갈, 군사기지 사용 허용 • EU 회원국, 전쟁 지지와 지원 선언 	전쟁 지원 공동선언
2001.10. 2	NATO, 집단자위권 발동		
2001.10. 3		프랑스, 영공 개방 및 군사지원	
2001.10. 7	미-영 합동군 아프간 공습 개시		
2001.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시 독트린 발표(테러지원국 및 용인국에 대한 잠재적 표적화) • 아프간 2,3차 공격 		
2001.11.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레반 진지 최대규모 폭격 • 미지상군 증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대테러전쟁에 1,200명 파병 • 독일, 아프간 전쟁 파병의사 표명 	
2001.11.17~18	이라크 등 테러지원국 경고	프랑스, 아프간에 미라주 10대 파견 결정	
2001.11.26		독일, 아프간 전쟁 군사 지원 개시	
2001.12.13			RRM 2001-03: 정치·경제적 재건 지원 (4,526,911유로)
2001.12.14	부시, 아프간전쟁 승리 선언		

자료: “아프간 전쟁 종합 일지,” 유정석 정리, 『민족연구』 제8호(2002), 51-53; European Commission Conflict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Unit, “Rapid Reaction Mechanism End of Programme Report Afghanistan,” December 2003, 6.

했다. 그러나 EU 대표단의 발표는 대부분 선언적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우며, 실천적 집행도 종전 후 RRM을 통해 실시된 재건 지원을 하는 데 불과했다. 이 재건 지원은 사실상 9·11테러 이전인 2001년 1월에도 이미 6억 유로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한 인도주의적 조치의 차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의미를 띠지 못했다.¹⁷⁾

이와 같이 EU 차원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EU 회원국들의 신속한 대응과 모순되는 현상이다. 이 모순은 주요 회원국들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의 공동 대응에 대한 전체 회원국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대응에서 EU 회원국들은 미국과 NATO 중심의 대서양주의를 거부하지 못하는 가운데 유럽주의와 대서양주의 간의 다자주의적 합의가 더 진전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과 모순은 회원국들 간의 분열로 나타나 이후 이라크 전쟁에 대한 초기 대응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가 이라크 전에 반대한 반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덴마크,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니아는 찬성했으며, 그리스, 에이레, 벨기에, 터키, 리투아니아, 말타는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했던 것이다(Salmon 2004, 450-45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개별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대응 방식을 EU 차원의 대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에는 반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대테러 전쟁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군사적으로 참여했지만, 이후 이라크 전쟁에는 반대했으며 EU 차원의 대응에도 소극적이었다. 이 국가들이 볼 때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 질서에서 대서양주의적 대응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EU 차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EU 차원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EU의 독자적 안보전략 모색이 다시 좌절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소극성은 느슨한 형태로나마 EU 차원의 다자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17) "EU Response to 11th September - European Commission action." 유럽연합 홈페이지, http://ec.europa.eu/external_relations/110901/me02_122.htm(검색일: 2007. 6. 2).

IV. 종전 후 유럽연합의 아프가니스탄 대책과 안보정책적 의미

종전 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이루어진 유럽연합의 조치들은 비군사적 정치·경제·기술적 지원인 RRM과 EU 집행위원회인도주의사무국(ECHO: European Commission Humanitarian Office)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정된 것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RRM은 모두 세 차례로 2002년도 3월, 4월, 5월에 각각 이루어졌다. 신속반응기제 아프가니스탄 지원정책 최종 보고서¹⁸⁾에 따르면, 2002년 3월에 설정된 RRM 2002-01은 주로 행정 시설의 수립과 개선을 위해 약 23만 유로를 지원했고, 4월에 결정된 RRM 2002-02는 정책 자문과 미디어 시설 수립과 개선에 약 48만 유로를 지출했으며, 마지막 5월의 RRM 2002-03은 약 536만 유로를 다양한 영역의 기술 부문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2003년 2월 11일에 채택한 '국가전략보고서 2003~2006'¹⁹⁾에 따르면, 2002년에 약 2억 700만 유로를 재건과 복구에 지출하고, 7,300만 유로를 인도주의적 부문에 지원하며, 2003~2004년에 약 4억 유로, 2003년에 5,500만 유로를 지원하는 등 총 10억 유로를 아프가니스탄 복구에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국가전략보고서 2007~2013'²⁰⁾은 위와 달리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2006년까지의 제1CSP를 최초의 재건 단계 계획으로서 기간시설 설비와 정부제도 및 공공행정의 수립을 강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집행될 제2CSP를 통해 제1CSP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제도 와 행정의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강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EU의 이러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은 2005년 11월 16일에 발표된 EU-아프가니스탄 간 공동성명에 의해 동반자관계로 규정됨으로써 정치적 일관성을 지녔다.²¹⁾ 이 공동성명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과 EU는

18) European Commission Conflict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Unit. 2003. "Rapid Reaction Mechanism End of Programme Report Afghanistan," December.

19) European Commission. "Country Strategy Paper Afghanistan 2003~2006."

20) European Commission. "Country Strategy Paper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2007~2013."

2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5. "EU-Afghanistan Joint Declaration: Committing to a New EU-Afghan Partnership," Strasbourg, 16 November.

〈표 2〉 종전 후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아프가니스탄 대책

일시	미국/NATO	EU 회원국	EU
2001.12.22	다국적 평화유지군 카불 도착		
2001.12.27		영국, 군사 200명 증파	
2002. 1. 4~8		독일, 평화유지군 선발대 70명 파견	
2002. 1.25	아프간 다국적군 17 개국 2,500명 도착		
2002. 3.27			RRM 2002-01: 행정 시설 지원 (226,257유로)
2002. 4. 3			RRM 2002-02: 정책 자문과 미디어 시설 지원(482,208유로)
2002. 5. 7			RRM 2002-03: 다양한 영역의 기술에 중점을 둔 긴급 지원 (5,364,505유로) *인도주의 지원 (ECHO) 포함
2003. 2.11			CSP 2003~2006: 정치·경제·보건 지원(2002~06년간 10억 유로) *인도주의 지원 포함
2005.11.16			EU-아프가니스탄 공동성명: 동반자관계 규정
2007. 5.16			CSP 2007~2013: 제도와 행정의 장기적 지속성 강화
2007. 6.15			EUPOL 파견

자료: "아프간 전쟁 종합 일지" (2002); European Commission Conflict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Unit (2003), 6; CSP 2002~2006; CSP 2007~2013; The EU and Afghanistan.

2004년 1월 4일에 채택된 아프가니스탄 헌법에 의거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민주적 아프가니스탄에 동의하고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와 같이 종전 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EU의 대책은 규범에 토대를 둔 대외정책 발안을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재정적·기술적인 전문가 판단을 사용함으

로써 민간외교정책(civilian foreign policy)을 적절한 국제 외교 역할로 발휘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Dover 2006, 403). 특히 이러한 입장에서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민간 위기관리 영역인 시민 보호(civil protection), 법치(rule of law), 대민 행정(civil administration), 치안 업무(police missions) 중 시민 보호와 대민 행정에 집중되었다(Dover 2006, 488). 실제 종전 후 EU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정책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세 주요 대상은 1) 지방 복구와 보건 및 시민사회, 2) 경제적 기반 시설, 3) 민간 경제 지원과 공공행정 개혁이었다.²²⁾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간 위기관리 영역의 문제는 민간 외교상의 문제나 비군사적·인도적 지원에만 머문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군사 행동과 전후 위기관리가 일정하게 정리된 뒤 후에는 EU도 시민 보호와 대민 행정에만 머물지 않고 법치와 치안업무에 준군사적 활동을 벌여왔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NATO와의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달리 일정한 시기 이후에는 다시금 조심스럽게 독자적 외교안보전략을 모색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실제 EU는 전투가 아닌 치안(policing)과 치안 지원(police aid)을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범주 안에서 수행할 목적으로 경찰력의 외국 파견을 공동행동이사회(Council Joint Actions)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Merlingen and Ostrauskaite 2005, 217-220). 이 때 치안은 사회 평화 유지와 범죄 소탕을 핵심과제로 하고 혼란에 빠진 사회를 다시 안정시키는 것을 말하며, 치안 지원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제도 공고화와 평화 확립 사이의 인과적 연결을 확립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비이데올로기적 정치 발전 지원을 의미한다. 두 가지 모두 위기관리에서 평화수립(peacebuilding)으로 전환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안 목적의 경찰력 파견은 EU의 안보정체성 부활을 위해 중요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 종전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치안 목적의 군사파견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참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가진 EU 차원의 경찰력 군사 파견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03년 1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EUPM, 2003년 12월 마케도니아에 EUPOL Proxima, 2005년 콩고에 EUPOL Kinshasa라는 명칭의 경찰력 군사를 파견 한 것이 그것이다(Merlingen and Ostrauskaite 2005, 216), 그리고

22) European Commission, "Country Strategy Paper Afghanistan 2003-2006," 24-26.

이러한 조치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실현되었다. 2007년 5월 30일에 공동행동이 채택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6월 15일에 160명의 경찰력 군사를 동원한 EUPOL이 파견되었던 것이다.²³⁾

이와 같이 종전 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EU의 대책은 초기에 민간외교 정책이나 비군사적·인도적 지원에 집중했지만, 후기에 가서는 경찰력 파견을 통한 준군사적 활동도 실행하였다. 비록 미국과 NATO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EU 차원의 준군사적 대책은 EU의 독자적 안보전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U 자체가 안보전략상의 주체이자 행위자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V. 결론

제2차대전 종전 이후 반세기 동안 유럽 안보는 냉전 블록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부 초강대국들에 의해 규정되고 운영되어, 군사구조와 고전적 현실주의 방식으로 블록간 세력 균형과 군비경쟁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에는 EU의 성립과 발칸 전쟁의 발발로 새로운 안보환경과 안보개념 및 안보정체성이 형성·발전되었다. 그것은 비군사적 안보위협 생성에 대한 인식과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자주적 안보정체성의 발전에 따라 EU 차원의 독자적 안보정책이 모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더욱 강화되는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EU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독자적 안보정책의 모색이 다시금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대응에서 EU 회원국들이 영국과 미국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종전 후 일정기간 동안 EU의 아프가니스탄 대책은 대개 민간외교정책의 테두리에서 시민보호와 대민행정에 한정되었으며 군사적 위기관리 행동은 전쟁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들의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23) "The EU and Afghanistan." 유럽연합 홈페이지, http://ec.europa.eu/external_relations/afghanistan/intro/index.htm#theu (검색일: 2008. 8. 29).

그러나 이것이 곧 “비너스로 상징되는 유럽인들은 엠마뉴엘 칸트(Emmanuel Kant)의 ‘영구적 평화’라는 이상적 세계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반면, 마르스로 상징되는 미국인들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현실적 세계에서 산다”(Kagan 2003)는 이야기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차원에서 도 유럽인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겪은 좌절 속에서조차 이미 2003년부터 경찰력 군사의 파견을 계속해 왔으며, 2005년 말에는 미국 GPS 위성을 반사하는 독자적 능력을 개발할 EU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2009~2012년의 A400 전략공수 공군 수송 계획도 EU 차원의 독자적 안보정책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Posen 2006, 180). 이와 같이 EU의 독자적 안보정책은 이제 국제적 치안유지 같은 준군사적 활동뿐만 아니라 군사적 행동에서도 보다 적극성을 띠어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EU의 대응은 이러한 독자적 안보정책의 좌절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좌절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전에 시도되었던 모색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곧, EU는 예민한 시기에는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에 머물러 EU 차원의 유럽주의와 다자주의를 소극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미국이나 NATO에게 민감하지 않은 지역이나 시기에서는 유럽주의를 내포한 다자주의를 다시 시도하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해왔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EUPOL 파견의 의미도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미국 일방주의의 국제질서 속에서 EU는 미국이 주도하는 예민한 분쟁에서는 미국과 NATO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는 가능성(possibility)의 차원에서 유럽주의와 다자주의를 실현하는 소극적이지만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고일 2008년 7월 18일

심사일 2008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 2008년 8월 18일

참고문헌

- 김미자. 2004. "냉전종식 후 유럽안보체제의 변화와 프랑스의 유럽안보정책: NATO와 WEU 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4집 1호, 177-196.
- 유정석 정리. 2002. "아프간 전쟁 관련 자료." 『민족연구』 제8호, 54-58.
- _____. 2002. "아프간 전쟁 종합 일지." 『민족연구』 제8호, 51-53.
- 오일환. 2001. "유럽안보의 '유럽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3집 2호, 365-394.
- 이수형. 2003. "국제안보체제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유럽안보체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115-134.
- _____. 200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 안보』. 파주: 한울.
- 이승근·황영주. 2004. "EU와 유럽안보: EU의 공동안보개념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1집 3호, 95-118.
- "A Human Security Doctrine for Europe: Barcelona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Europe's Security Capabilities," Barcelona, 15 September 2004.
- Bull, Hedley.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5. "EU-Afghanistan Joint Declaration: Committing to a New EU-Afghan Partnership." Strasbourg, 16 November 2005.
- Dover, Robert. 2006. "The EU's Joint Actions on Anti-personnel Mines and Unexploded Ordnance: Finding a Security Policy Identity."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1, 401-416.
- Duke, Simon and Hanna Ojanen. 2006. "Bridging Internal and External Security: Lessons from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28-5 (December), 477-494.
- "EU Response to 11th September - European Commission action." 유럽연합 홈페이지, http://ec.europa.eu/external_relations/110901/me02_122.htm(검색일: 2007. 6. 2).
- European Commission Conflict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Unit. 2003. "Rapid Reaction Mechanism End of Programme Report Afghanistan," December.
- European Commission. "Country Strategy Paper Afghanistan 2003~2006."
- European Commission. "Country Strategy Paper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2007~2013."
- Hyde-Price, Adrian. 2002. "European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owards a Stable Peace Order?." Andrew Cottey and Derek Averre, eds. *New Security Challenges in Postcommunist*

- Europe: Securing Europe's East*, 190-212.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Kagan, Robert. 2003. *Of Paradise and Power: America and Europe in the New World Order*. New York: Alfred A. Knopf.
- Merlingen, Michael and Rasa Ostrauskaite. 2005. "ESDP Police Mission: Meaning, Context and Operational Challenges."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0. 215-235.
- "OSCE(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http://en.wikipedia.org/wiki/Organization_for_Security_and_Cooperation_in_Europe (검색일: 2008. 8. 21).
- OSCE 홈페이지, <http://www.osce.org/about> (검색일: 2008. 8. 21).
- Posen, Barry R. 2006. "European Uni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Response to Unipolarity?." *Security Studies* 15-2 (April-June). 149-186.
- Salmon, Trevor. 2004. "United in its Diversity (or Disunited in Adversary): That is the Question for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Perspectives on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5, No. 3, 447-468.
-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troduction." 유럽연합 홈페이지, <http://europa.eu/scadplus/leg/en/lvb/r00001.htm> (검색일: 2007. 6. 3).
- "The EU and Afghanistan." 유럽연합 홈페이지, http://ec.europa.eu/external_relations/afghanistan/intro/index.htm#theu (검색일: 2008. 8. 29).
- Treaty of Amsterdam.
- Treaty of Nice.
- Treaty on European Union.
- Wallace, William. 1999.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state Order of Post-sovereign Regional Syste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5 (Special Issue). 201-223.
- Whitman, Richard. 2006. "Road Map for a Route March?: (De-)civilianizing through the EU's Security Strategy."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11. 1-15.

ABSTRACT

EU's Response to International Disputes and Vicissitudes of its Independent Security Strategy: Focused on Security Political Meaning of EU's Response to the Afghanistan War

Byungkee Ju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U has felt acutely the european substantive security strategy was needed and has sought for it in the new circumstances of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EU expans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Yet the EU has not succeeded in the confirming the strategy because it could not deal with the strengthened unilateralist line of the US after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The european wartime intervention in the Afghanistan War was possible only on the member state level. And the EU's Afghanistan postwar politics was also concentrated on civil protection and civil administration in the frame of civil foreign policy. In other words, the EU could act within the border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led NATO. But on the other hand, with autonomous security strategy, such as the Joint Action on the EU police mission, the EU has not abandoned its europeanist and multilateralist pursuits. Accordingly, the EU's security policy relevant to international disputes can be defined as a passive but effective multilateralist strategy that can be used flexibly under circumstances.

Keywords: CFSP, ESDP, Afghanistan War, europeanism, multilateralism